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년 10월 7일(수)		
	문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보팀 조선영 팀장 (044-415-5043, sycho@krivet.re.k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보팀 이창곤 선임전문원 (044-415-5031, gpr@krivet.re.kr)		
	분량	본문 2쪽	첨부	사진 1매 및 자료집 1부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 심포지엄 개최

- 지역 인재 개발 현주소 진단 및 정책 방향 모색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0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은 10월 2일(금) 오후 2시부터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주제로 개원 29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 홍광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력수급분석센터장은 ‘신기술 분야 구인배율과 미스매치로 본 지역 인력수급 구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광표 센터장은 신기술 분야 구인공고 약 30만 건을 분석해 분야별 수요의 지역 분포와 인력 미스매치를 진단했다. 이어 유형별로 처방과 공간 단위를 달리 설계하고, 부처 간 데이터 연계로 수요·수급 진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 이어 주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인재 정책과 대학의 역할: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휘정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이 진학 단계보다 취업 단계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대학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음을 데이터로 보였다. 대학 간 실질적 협력, 교육청·지자체 연계, 대학원·연구력 강화, 주거·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이어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장은 ‘청년층의 이동과 고용에 대응하는 지역 인재 정책의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원영 센터장은 청년들은 진학기에는 서울로, 취업기에는 수도권 전반으로 이동하며, 청년 고용 침체는 비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임을 짚었다. 이어 지역을 하나로 보는 처방은 한계가 있어 유형별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하며 8개 유형을 제시했다.
 - 이어 김상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고용연계연구본부장은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호 본부장은 청년 패널 자료로 졸업 학교와 취업 지역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졸업 후 비수도권에 취업한 집단의 임금이 가장 낮았다. 또한 비수도권 졸업자도 수도권에 취업하면 임금 프리미엄이 생기며, 특히 대졸 이상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커 고학력 인재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강소기업 육성, 임금 격차 완화, 대학-기업 연계, 정주 여건 개선을 제언했다.
 - 이어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진우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서선영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석진홍 충남경제진흥원 경제교육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더불어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초석을 다지는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